목숨 건 극한 수행…전법 원력 다져



총도감 호산입니다
호산 지음
불교신문사
2만5000원

상월결사 4년간 기록 정리해
총도감으로서 느낀 소회 풀어
"금생에 하나밖에 없는 순례"
부처님법 전하는 각오도 담겨



인도순례 30일차,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뒤에서 순례를 함께한 총도감 호산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겨우내 난방하지 않은 천막에서 옷 한 벌로 생활하며 하루 한 끼 공양하고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정진이 끝나는 날까지 묵언해야 한다.…이를 어길 시 조계종 승적을 반납하겠다는 각서와 제적원을 제출한다."

2019년 11월 11일 기해년 동안거 입재일. 위례 신도시에 자리한 상월선원 부지에선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아홉 스님이 풍찬노숙 천막정진에 들어갔다.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하루 한 끼 공양, 단벌 정진, 삭발 · 목욕 금지, 외부인 접촉 및 천막 출입 금지, 묵언이라는 혹독한 청규를 세우고 한겨울 목숨 건 수행에 나선 스님들.

이제는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 주지가 된 호산 스님은 4년 전 이때, 지객 소임을 자청했다. 종단의 행정수반인 총무원장을 8년이나 지낸 자승 스님이 무문관 정진에 이어 풍찬노숙을 하겠다는 선언에 호산 스님은 오히려 피가 끓었다. 출가 40년, 드디어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 밥값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 설렘이 샘솟았다.

그로부터 90일, 호산 스님은 천막을 나서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항상 후배들의 안위를 챙기며 고행을 이어간 회주 자승 스님의 지도력부터 죽을 고비에도 문밖을 나서지 않으며 수행의지를 다진 재현 스님의 마음가짐까지. 호산 스님은 천막 밖의 사부대중과 함께한 90일을 '조계종사에 다시없을 대중 무문관' 으로 평가한다.

천막정진이 끝날 무렵, 자승 스님은 이대로 수행 정진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결심과 함께 부처님 7대 성지를 걸어서 순례하자는 인도순례의 뜻을 전했다. 이후 호산 스님은 상월결사의 모든 순례에서 총도감을 맡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에서 먼저 펼쳐진 2020년 자비순례 만행결사, 2021년 삼보사찰 천리순례, 2022년 마음방생 평화순례, 그리고 올 초 펼쳐진 43일간의 인도순례까지.

상월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호산 스님은 인도순례를 마치며 "금생에 하나밖에 없는 순례에 동참하게 돼 개인적으로 감동이가 가슴이 벅차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무엇보다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격려와 배려로 이끈 회주 자승 스님의 법력에 한량없는 공경을 표한다.

이처럼 〈총도감 호산입니다〉는 상월결사의 총도감으로서 정진에 함께한 호산 스님의 지난 4년을 기록하고 있다. 상월결사의 매순간 몸소 겪고 느낀 진솔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불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상월선원 천막결사에서 발원해 한국불교에 새바람을 불어넣은 인도순례로 이어지는 불교중흥을 위한 정신이 세상 속에서 살아 숨쉬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란 호산 스님. 그 정신을 이어 부처님법 전하는 데 온 삶을 바치겠다는 스님의 각오가 오롯하게 전해진다.

어두운 세상 밝히는 노래



사람이 사람에게로 가 서면
글 최명숙 / 도서출판 도반
1만 3000원

만남, 동행, 기다림, 사랑,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최명숙 시인의 목소리가 따뜻한 감성의 언어로 탄생했다.

〈사람이 사람에게로 가 서면〉에는 한 계절을 절집에서 보낸 노 여행자 이야기, 여행길에서 만난 풍경들과 귀향 이야기, 화두처럼 찾던 길에 대한 단상들, 잊지 못한 사랑 이야기, 몽골평원에서의 이야기와 귀가 들리지 않는 몽골 소년과 맞은 저녁의 그리움 등 시인의 곁에 왔다 간 것들이 시로 담겼다. 그저 평범해 보였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시인의 마음에서 꽃처럼 피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노래가 돼 다가온다. 선한 시심을 간직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인 듯 마주한 삶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둘러 싼 세상에서 어두움을 어둡다 하기보다는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밝고 깊어진 시선으로 그려냈다.

시인에게 있어 시 쓰는 일은 삶에 있어서 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가리고 마음의 고요를 얻는 과정이며 그렇게 써간 시가 누군가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그의 고요가 되길 바란다.

최명숙 시인은 "지나간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별의 먹먹함에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이별이 아닐지도 모르며, 보내야 할 것을 보낸 후에 남은 기억들은 슬픔이기보다 영원히 남을 추억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세상을 향한 시인의 시선따라 시를 읽다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따듯해지면서 생의 길이 나고, 마음을 내려놓을 공간이 보일 것이다.

임은호 기자

▲저자 최명숙 시인은?

등단 30년이 넘은 중견시인이다. 1992년 시와 비평으로 신인상을, 2002년 구상솟대문학상 본상을, 2018년 대한민국장애인문화예술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마음이 마음에게〉 〈따뜻한 손을 잡았네〉 등 8권의 시집을 출간했으며 〈심검당 살구꽃〉은 2021년 한국불교출판협회의 올해의 10대 불서로 선정됐다. 현재 보리수아래 대표,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이상, 도서출판 도반 편집주간, 조계종포교사단 포교사를 담당하고 있다.



한 편의 가슴 벅찬 시 같은 책



작은 빛 하나가
글 캇 예
그림 이자벨 아르스노
옮김 황유진
불광출판사
1만 4000원

"작은 빛 하나가 온 하늘을 밝힐 순 없어도…작은 시작이 되어 줄 거야!"

〈작은 빛 하나가〉는 어둠을 다루고 있다. 그 어둠은 불을 다 끈 뒤 아이 혼자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와 같은 말 그대로 어둠일 수도 있고, 풀이 죽거나 외롭거나 절망하거나 위험할 때 아이 마음에 깃든 어둠일 수도 있다.

어떤 어둠과 맞닥뜨리든 언제나 희망이 있다고 글쓴이는 말한다. 희미하게 깜박거릴지라도 분명히 빛이 있다고, 그 작은 빛으로도 자신감을 기르고 자기 앞의 세상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이다. 우리 안에서 조용히 반짝이는 작은 빛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어쩌면 이런 희망의 메시지는 아이보다는 어른에게 더 진실한 울림을 줄지도 모른다. 수십 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힘든 시간들을 건너 지금에 이르렀을 테니 말이다.

〈작은 빛 하나가〉는 어떤 어둠과 맞닥뜨리든 언제나 희망이 있다고, 희미하게 깜박거릴지라도 분명히 빛이 있다고, 그 작은 빛으로도 자신감을 기르고 자기 앞의 세상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아마도 아이와 어른이 함께 마주 보고 읽을 때, 아이가 그 어른을 믿고 따를 때, 책을 읽으며 둘이 각자의 감상과 느낌과 경험을 꺼내 놓고 도란도란 얘기할 때,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한 희망의 빛이 더 잘 눈에 띌 것이다.

임은호 기자

칠하고 읽고 답하면 소원도 이뤄진다



마음을 전하고 마음에 답하는 33관음 컬러링북
정기란 지음
담앤북스
1만 6800원

세상 모든 소리를 듣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33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비의 상징, 관세음보살. 모든 질병과 삿된 기운을 물리쳐 주는 양류관음부터 어민이나 항해하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아뇩관음까지 〈33관음 컬러링북〉에는 33관음응신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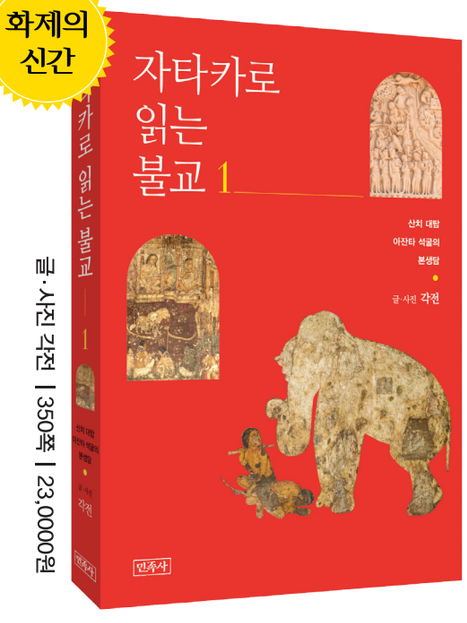
관세음보살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명호만 불러도 큰 덕이 온다고 한다. 붓다아티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정기란 작가의 관세음보살은 조금 더 특별하다. 친근하고 편안한 모습의 관세음보살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다독이는 작은 위안이 된다. 관세음보살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칠했다면 다음페이지에 있는 '관음예문' 과 '오늘의 기록' 이 나만의 시간을 조금 더 풍성하게 채워 줄 것이다.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365일 중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날은 언제인가요?"와 같은 기분이 좋아지는 질문에 하나씩 답을 하다 보면,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관세음보살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칠해보자. 매일이 조금 더 행복해질 것이다.

임은호 기자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본생담 자타카로 읽는 불교 1

화제의 신간



부처님의 본생담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책!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의 저자 각전 스님의 역작!

"산치 대탑과 아잔타 석굴의 석벽에 그려진
본생담의 내용에 환희와 기쁨에 젖어들었습니다.
본생담의 스토리텔링의 힘은 대단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자 서문 중에서–



각전 스님 서울대 정치학과와 동 대학원(정치철학 전공)를 졸업하였다. 39회 행정고시 합격, 해양수산부에서 근무하다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출가를 단행하였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 직지사 선원 등에서 정진하였으며, 대장경 천년 축전 해인사 준비위원, 〈해인〉지 편집장을 잠시 맡아 활동하다가 다시 선원으로 돌아와 수행, 국제적 안목을 넓히기 위해 미얀마의 쉐우민 국제명상센터에 다녀왔다. 현재 동화사, 통도사, 범어사, 쌍계사, 법주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고 있으며, 수행의 여가에 법보신문에 '각전 스님의 본생담으로 읽는 불교', 월간 불교문화에 '각전 스님의 부처님 성지 순례'를 연재하고 있다. 저서로 2021년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 도서 《인도 네팔 순례기》가 있다.

글·사진 각전 | 350쪽 | 23,0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